

치협, 장애인 진료 사업 앞장서

장애인 구강보건 개발 시급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119만명, 2010년에는 153만명으로 추산되며,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낮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사회적 차별, 장애인 구강진료 인력과 시설 미비로 치과의료 이용의 기회를 제약받고, 열악한 구강건강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 가운데 의료혜택이 1, 2위로 나타나 장애인 구강보건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 국민의식 제고 시급

치협은 90년대 초부터 장애인구강보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91년부터 93년까지 경기도 분당 지역에 장애인 진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덴탈 썬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로부터 보라매 병원의 1개 층을 제공받아 장애인 진료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장애인 진료센터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확보, 대의원총회의 부결 등 난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로 중단됐다.

정부의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부재, 치협의 역량 부족으로 '복지'와 '보건' 사이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된 장애인 구강보건은 한국구강보건협회의 구강검진과 치과치료사업(1978~2000)을 시작으로 헌신적인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 복지시설 관계자의 관심으로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90년대 후반, 장애인 구강보건의 질적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하였으며 기창덕 박사의 제안으로 개설된 서초구 보건소 장애인 치과진료소는 지역사회 보건 기관과 치과의사회가 연계된 장애인 구강진료 사업의 효시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립재활병원의 치과개설은 국공립 병원의 장애인 구강진료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21세기 치과병원의 특수진료과는 민간 부문에서 병원급 치과의료기관에 개설된 최초의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 부서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기존의 개인적 봉사차원의 진료봉사를 조직적, 종합적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과 부활, 구강보건법 제정,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으로 구강보건 사업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으나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한 공공의료자원과 재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인식 제고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사업 취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구강 보건법상의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 대상은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자원이 민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구강 보건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현재 장애인 복지의 추세가 수용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 재택 재활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치과의료기관이 중심이된 구강 진료 체

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과 진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의 경험과 노력을 범치과계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현재 치과계에는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과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있다. 다양한 지역과 현장, 대상에 대한 구강 보건 사업과 진료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지식은 현단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전문성과 헌신성을 결집하고, 중복 사업 부문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건 부문과 복지 부문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의 사회적 관심과 범위를 확산시킨다.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은 구강 보건의 측면과 장애인 복지 부문이 결합되어 사회복지 단체, 학계, 시민사회 단체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홍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즉, 구강 보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치과계 외부의 관심과 호응을 받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인 구강 보건 문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의 구현을 통하여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한다.

현재 국민과 언론의 의료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의료 단체는 이익 단체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인의 정당한 요구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구강 보건과 치과 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과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을 구현함으로써, 치과의료인의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구강 건강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다.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한 지부, 분회, 회원의 참여를 증대시킨다.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사업 가운데 장애인 구강 보건 사업은 치과의사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다. 장애인 구강 건강 문제의 80% 이상이 지역사회 일반 치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며, 임상 중심의 사업 특성으로 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증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한 개원의들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장애인 치과진료망 구축 사업

치협은 장애인이 집에서 가까운 치과병의원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장애인 치과진료망을 구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국 장애인 치과진료망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별로 장애인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2백20여개의 치과병의원,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나 장애인 치과진료 구강보건 홈페이지(www.dentafriend.or.kr)에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의 장애인 치과진료 기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전문과별(정신과, 소아과, 내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진료상담의를 두어 상담실을 통해 자문위원과 상담할 수 있다.

치협은 이를 위해 전국의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진료를 희망하는 2백여개의 치과병의원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료실을 두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장애인, 보호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치과인을 위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안내서' 게시판은 치과의사, 위생사 등 구강보건인력을 위한 곳으로 공지사항이나 장애인사업에 대한 의견, 질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치협은 전국 장애인 치과진료망 및 장애인 치과치료, 구강보건에 관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치과진료 체계가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추진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많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학생들이 보건소, 사회복지관, 특수학교 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민, 관, 학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